

중성 ‘ㄷ, ㅌ, ㅊ, ㅋ’의 ㅅ음화*

박재희**

|| 차례 ||

- I. 머리말
- II. 음운 변동으로서의 ㅅ음화
- III. 표준 발음과 ㅅ음화의 선택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명사 발음의 중성 /ㄷ, ㅌ, ㅊ, ㅋ/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연결되는 구성에서 화자들이 이들 중성을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하여 발음하는 표준 발음과 함께 선택적으로 중성을 [ㅅ]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ㅅ음화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ㅅ음화 이외에도 국어에서는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된 발음이 화자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예들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들을 비교 분석하여 ㅅ음화의 특징을 밝혔다. 그 결과 명사 발음의 중성 /ㄱ, ㅋ, ㆁ/이 모음 조사와 연결된 구성에서 화자들이 표준 발음과 함께 선택적으로 중성을 [ㄱ, ㆁ]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현상도 ㅅ음화 현상과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i)표준 발음으로 실현되는 중성의 기저 음소와 (ii)중성이 중화(neutralization)된 불파음 [p^h, t^h, k^h]이 화자에 따라 기저형으로 선택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ㅅ음화는 화자들이 명사 발음 중성의 기저형으로 기저 음소인

* 이 논문은 2013년 한민족어문학회 추계 전국 학술 발표대회(2013.11.2. 영남대)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토론과 심사를 맡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ㄷ, ㅌ, ㅈ, ㅊ/ 대신에 불파음 [t^h]을 선택하고 이 기저형이 [ㅅ]으로 음운 변동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명사 말음 종성 /ㄷ, ㅌ, ㅈ, ㅊ/, 모음조사, ㅅ음화, 내파음, 기저형

I. 머리말

본고에서는 명사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이고 이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주격조사 ‘-이’, 대격조사 ‘-을’, 처격조사 ‘-에서’ 등과 결합하는 환경에서 국어 화자들이 (i)종성을 연음하여 발음하는 표준 발음과 함께 (ii)종성을 [ㅅ]으로 교체하여 발음하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고찰하여¹⁾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예문(1)은 표준 발음과 ㅅ음화의 구체적인 예이다.

- (1) <표준 발음/ ㅅ음화>
 가. 꽃+을 → [꼬출] / [꼬술]
 나. 머리술+이 → [머리수치] / [머리수시]

(1가)와 (1나)는 명사 ‘꽃’과 ‘머리술’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대격조사 ‘-을’과 주격조사 ‘-이’가 연결된 구성이다. 이 같은 구성에서 표준 발음은 명사 말음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발음하는 연음 규칙에 따라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꼬출]과 [머리수치]²⁾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

1) 입체적이라는 용어를 본고에서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 대상의 확대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ㅅ음화가 화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단편적인 음운론적 시각에 기초한 논의와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2) ‘머리술+이’ 구성의 표준 발음이 *[머리수티]가 아니고 [머리수치]인 것은 구개음화

음에 해당된다. 그런데 국어 화자들은 이따금 표준 발음 대신 종성 /ㄷ, ㅌ, ㅈ, ㅊ/을 [ㅅ]으로 교체하여 발음하곤 한다. (1)에서 표준 발음인 [꼬출]과 [머리수치]를 대신해서 [꼬술]과 [머리수시]로 발음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음운 변동을 고광모(1989)에서는 종성 /ㄷ, ㅌ, ㅈ, ㅊ/이 [ㅅ]음으로 변동된 사실을 중시하여 ‘ㅅ음화’로 칭하였는데 본고에서도 논의의 편의상 ‘ㅅ음화’로 부르도록 하겠다. (1)에서 ㅅ음화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ㅅ]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ㅅ음화를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예: 구개음화, 자음동화 등)의 하나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듯싶다. 하지만 ㅅ음화가 필연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고 화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음운 변동이라는 사실과 음운 변동의 대상이 명사 말음 종성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은 ㅅ음화를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같은 이유로 ㅅ음화는 일찍부터 국어학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배동식 1965, 박태권 1968, 최태영 1977, 곽충구 1984, 고광모 1989, 최림식 1990, 성희제 1991, Kim 2001, Kang 2003 등). 그러나 ㅅ음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i)ㅅ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³⁾과 (ii)ㅅ음화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고에서는 (1)의 내용에서 ㅅ음화를 따로 떼어내어 개별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 분석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논의의 틀을 새롭게 하여 ㅅ음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i)ㅅ음화가 나타나는 환경(명사 말음 종성과 모음 조사가 결합된 구성)과 (ii)ㅅ음화가 화자들의 선택에 따라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⁴⁾ ㅅ음화

가 실현됐기 때문이다.

3) 유추적 관점에서 ㅅ음화를 방언적 차이로 설명한 곽충구(1984), Kang(2003)의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ㅅ음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국어의 예들을 찾고 이들을 ㅅ음화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ㅅ음화가 나타는 원인을 밝힐 것이다. 아래 (2)는 ㅅ음화가 일어나는 동일한 환경에서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예들로 이들 역시 화자에 따라 표준 발음과 함께 선택되어 발음된다.

(2) <표준 발음/ [ㄱ, 비]으로 음운 변동>

가. 부엌+에 → [부어케] / [부어게]

나. 숲+으로 → [수프로] / [수브로]

(2)에 제시된 음운 변동(예: ‘부엌+에’ [부어케])은 언뜻 보기에는 ㅅ음화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2)의 음운 변동이 ㅅ음화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또한 화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 발음과 함께 (2)의 음운 변동된 발음이 결정된다는 점을 직시하면 (2)의 예들은 ㅅ음화와 함께 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에 제시된 음운 변동 현상을 ㅅ음화와 함께 검토할 것이다.

논의에 앞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ㅅ음화는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ㅅ]으로 개별적으로 교체되어 나타난 음운 변동이 아니라 이들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ㅅ]이 모음 조사 앞에서 [ㅅ]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음운 변동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밝힌 주요한 내용은 (i)명사 말음 종성이 중화되지 않

4) 물론 실제 언어생활에서 개별 화자들이 표준 발음만으로 또는 ㅅ음화된 형태로만 발음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화자들이 표준 발음과 ㅅ음화를 선택적으로 발음한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첫째, 본고에서 지칭한 “화자”는 개별적인 화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삼는 집단의 구성원 모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표준 발음과 ㅅ음화는 화자의 발음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청자의 입장에서는 발화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ㅅ음화를 화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는 환경(모음 조사 앞)에서 중성 /ㄷ, ㅌ, ㅈ, ㅊ/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으로 실현되는 이유와 (ii) 화자들이 불파음 [t̚]을 [ㅅ]으로 바뀌어 발음하는 현상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또한 본고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음운론과 음성학 설명에 의존하지 않고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의 중성에 관한 표기와 받침의 발음에 관한 사항의 검토를 통해 찾아보았다.

II. 음운 변동으로서의 사음화

사음화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최태영 1977, 최림식 1990, Kim 2001 등). 사음화는 중성의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ㅅ]으로 바뀌어 발음된 것이므로 어찌 됐든 음운 변동 현상으로 간주할 만하다. 이 같이 사음화를 음운 변동 현상의 결과로 간주한다면 중성의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어떻게 [ㅅ]으로 변동되었는가는 아래 (3)과 같이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가. 중간 단계인 [X]를 거쳐 [ㅅ]으로 변동:

/ㄷ, ㅌ, ㅈ, ㅊ/ → [X] → [ㅅ]

나. 중간 단계 없이 [ㅅ]으로 변동:

$$\left\{ \begin{array}{l} /ㄷ/ \\ /ㅌ/ \\ /ㅈ/ \\ /ㅊ/ \end{array} \right\} \longrightarrow [ㅅ]$$

(3가)는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중간 단계인 [X]를 거쳐 최종적

으로 [시]으로 바뀌어 ㅅ음화가 실현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3나)는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개별적으로 [시]으로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3가)와 (3나)의 접근 방식을 선행 연구를 통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

(3가)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 ㅅ음화를 설명한 논의로는 최태영(1977)이 대표적이다. 최태영(1977:377)은 명사 말음 종성 /ㄷ, ㅌ, ㅈ, ㅊ/이 모음 조사 앞에서 중화를 겪어 일차적으로 불파음 [t̚]⁵⁾으로 실현되고 불파음 [t̚]이 다시 마찰음 [시]으로 바뀌어 ㅅ음화가 실현된다고 주장하였다⁶⁾. 최태영(1977)의 ㅅ음화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아래 (4)와 같은 음운 변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4) 가. 종성 /ㄷ, ㅌ, ㅈ, ㅊ/ → [t̚]/_____ 모음 조사 (중화)
 나. [t̚] → [시]/_____ 모음 조사 (음운법칙)

- (5) 머리술+이 → (4가) [머리술]+[이] → (4나) [머리수시]

그런데 ㅅ음화를 (4)와 같이 설명하게 되면 종성의 기저 음소인 /ㄷ, ㅌ, ㅈ, ㅊ/이 모음 조사 앞에서 불파음 [t̚]으로 중화되는 이유와 불파음인 [t̚]

5) 초성 ‘ㄷ’은 폐쇄와 파열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지만 종성 ‘ㄷ’은 폐쇄만 나타나고 파열의 과정은 생략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종성의 ‘ㄷ’인 불파음 ‘ㄷ’을 IPA 표기법을 사용하여 ‘t̚’으로 사용하였다.

6) 음절말의 불파음과 중화에 대한 학계의 흐름은 김주필(1988)의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ㄷ’과 음절말 ‘ㅅ’의 논의에 잘 정리되어 있다. 김주필(1988:204)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음절말 ‘ㄷ’과 음절말 ‘ㅅ’이 각각 존재하였는데 음절말 ‘ㄷ’은 불파음인 [t̚] (또는 내파음 unreleased)을 나타내는 반면, 음절말 ‘ㅅ’은 불파음인 [t̚]으로 실현되었다는 견해와 아직까지 중화에 미치지 못한 내파음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 그 마찰이 매우 약한 [s]”였다는 견해가 있다고 하였다.

이 다시 [ㅅ]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고광모(1989:5)에서도 지적이 있었듯이, (4가)에서 종성 /ㄷ, ㅌ, ㅈ, ㅊ/이 모음 조사 앞에서 불파음 [t^h]으로 중화되었다는 제안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 발음에서 종성 /ㄷ, ㅌ, ㅈ, ㅊ/은 (i)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 (ii)자음이 초성인 음절 앞, 그리고 (iii)뒷말의 도움 없이 단어가 단독형으로 쓰일 때만 불파음 [t^h]으로 중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가)에서처럼 형식 형태소인 모음 조사 앞에서 종성 /ㄷ, ㅌ, ㅈ, ㅊ/이 중화되었다는 것은 현실 발음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4)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종성 /ㄷ, ㅌ, ㅈ, ㅊ/이 중화될 수 없는 환경에서 불파음 [t^h]으로 중화된 이유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고광모(1989)는 ㅅ음화가 명사와 모음 조사가 결합된 구성에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아래 예문 (6)을 보자.

- (6) 가. 명사+주격조사 ‘-이’: 할미꽃+이 → [할미꼬치] / [할미꼬시]
나. 동사+어미 ‘-아’: 쫓+아 → [쫓차] / *[쫓사]

(6가)는 명사 ‘할미꽃’에 주격 조사 ‘-이’가 연결된 구성으로 국어 화자들은 종성 /ㅊ/을 연음하여 [할미꼬치]로 발음하기도 하고 ㅅ음화하여 [할미꼬시]로 발음하기도 한다. 반면 (6나)는 동사 ‘쫓다’의 어간 ‘쫓-’에 어미 ‘-아’가 연결된 구성으로 화자들은 종성 /ㅊ/이 뒤 음절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 [쫓차]로만 발음하고 ㅅ음화된 형태인 *[쫓사]로 발음하지 않는다.

ㅅ음화를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또 다른 시도로는 (3나)와 같이 명사 발음 종성의 기저음소인 /ㄷ, ㅌ, ㅈ, ㅊ/이 개별적으로 [ㅅ]으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Kim(2001)이 대표적이다.

Kim(2001)에서는 종성 /ㄷ, ㅌ, ㅈ, ㅊ/이 고모음 앞에서 치찰음화(assibilation)를 겪어 [ʃ]으로 변동된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치찰음화란 파열음 중 치조음인 /t, d/가 음운 변화의 동인(trigger)인 고모음 앞에서 파찰음 [t^{sh}, d^{zh}] 또는 마찰음 [s, z]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치찰음화는 세계 여러 언어(예: Axininca Campa 어, 핀란드 어, 고대 독일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음운 변동 현상으로 Kim(2001)은 한국어에서는 구개음화와 ㅅ음화가 치찰음화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래 예문 (7)을 통해 Kim(2001)의 제안을 검토해 보자.

(7) 가. 주격조사 ‘-이’ 앞에서

/p^hat^h+i/ → [p^ha\$t^{sh}i] ~ [p^ha\$si] ‘read bean’+SUBJ

/so^h+i/ → [so\$t^{sh}i] ~ [so\$si] ‘kettle’+SUBJ

/mit^h+i/ → [mi\$t^{sh}i] ~ [mi\$si] ‘bottom’+SUBJ

나. 고모음이 아닌 환경

/p^hat^h+esə/ → [p^ha\$t^he\$se] *[p^ha\$se\$se] ‘in the field’

/mat^h+a/ → [ma\$t^ha] *[ma\$sa]

‘(I, you) undertake, smell’

/kat^h+ε/ → [ka\$t^hε] *[ka\$se]

‘(it) is the same’

(Kim 2001: 104)

(7가)에서 종성 /t^h/ (/t/ε/)이 고모음인 주격조사 ‘-이’ 앞에서 파찰음 [t^{sh}] ([ㅊ]) 또는 마찰음 [s] ([ㅅ])으로 변동되었다. Kim(2001)은 (7가)의 구개음화와 ㅅ음화를 한국어의 치찰음화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어에서 치찰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고모음 앞으로 제한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

해 종성 /t^h/ 다음에 후행하는 모음이 고모음이 아닌 환경에서는(예: 중모음인 처격조사 ‘-에서’ 앞) 파찰음 [t^{sh}]로 또는 마찰음 [s]이 바뀌어 발음하지 않는데 이를 (7나)의 예를 통해 설명하였다. 이 같은 Kim(2001)의 제안은 스음화를 보편적인 음운 변동 현상과 연관 지어 설명하려고 한 점에 있어서는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여러 음소들이 하나의 변이음으로 변동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음운 법칙을 고려할 때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다. 또한 스음화와 관련된 현실 발음을 검토해 보면 Kim(2001)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m(2001)은 스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고모음 앞으로 한정하였지만 국어 화자들은 고모음 이외의 환경에서도 스음화로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사 ‘밭’이 처격조사 ‘-에’와 연결된 구성에서 화자들은 표준 발음인 [바테]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스음화된 [바세]로 발음하곤 한다. 이때 ‘밭’과 결합하는 처격조사 ‘-에’는 고모음이 아니다. 따라서 스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고모음 앞으로 제한된다는 Kim(2001)의 제안은 타당하지 않다⁷⁾. 둘째, Kim(2001)은 스음화의 동인으로 고모음 앞이라는 음운론적 조건만을 제시하였는데 현실 발음을 살펴보면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스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사에 후행하는 형태소는 반드시 형식 형태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모음 앞이라는 음운론적 조건만을 제시한 Kim(2001)

7) 위의 지적에 대해 2013년 한민족어문학회 추계 전국 학술 발표대회에서 영남대 김유정 선생님은 “스음화가 중모음인 처격조사 ‘-에’ 앞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고모음 ‘-으’로, -을, -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예외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스음화가 예외적인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할 때 거기에 또 다시 예외를 두는 것이 올바른 설명 방식인지 의문 이었고, 중모음인 처격조사 ‘-에’ 앞에서 스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다른 고모음 앞에서 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명사와 조사의 결합은 단순히 비율을 따질 성격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중모음인 처격조사 ‘-에’ 앞에서도 스음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스음화를 설명함에 있어 예외로 다룰 성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의 제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 (8)을 보자.

- (8) 가. 형식 형태소 앞: 꽃+이 → [꼬치] / [꼬시]
 나. 실질 형태소 앞: 꽃+위 → [꼬뒤] /*[꼬쉬]

(8)에서 명사 ‘꽃’ 다음에 후행하는 형태소는 ‘이’([i])와 ‘위’([y])로 모두 고모음이다. Kim(2001)의 주장대로라면 (8)에서는 모두 ㅅ음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8나)에서 명사 ‘꽃’이 실질 형태소인 ‘위’와 연결된 구성에서는 ㅅ음화된 *[꼬쉬]로 화자들이 발음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ㅅ음화를 음운 변동 현상으로만 한정하여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화자들의 현실 발음과 ㅅ음화가 화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에서 제시한 두 접근 방식은 모두 ㅅ음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Ⅲ. 표준 발음과 ㅅ음화의 선택

앞 절에서 이미 논의하였듯이 표준 발음과 ㅅ음화는 화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표준 발음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ㅅ음화만을 따로 떼어내어 음운 변동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태도로는 ㅅ음화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표준 발음과 ㅅ음화가 화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음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 ㅅ음화가 일어나는 동일한 환경에서 (i)ㅅ음화와 유사한 음운 변동을 겪고, (ii)이러한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과 함께 화자의 선택에 따라 발음되는 국어의 예들을 찾아 이들과 ㅅ음화를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래 (8)은 ㅅ음화와 유사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국어의 예이다.

- (8) <표준 발음> <음운 변동>
 가. 부엌+에 → [부어케] / [부어게]
 나. 마른 잎+으로 → [마른니프로] / [마른니브로]⁸⁾

(8)에서 명사 말음 종성은 /ㄱ/과 /ㄲ/이다. 그런데 이들 명사가 형식 형태소인 모음 조사와 결합된 구성을 형성할 때 화자들은 표준 발음을 따라 종성 /ㄱ/ 또는 /ㄲ/을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시켜 발음하기도 하고 때때로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ㄱ] 이나 [비]을 연음시켜 발음하기도 한다. (8가)에서 표준 발음인 [부어케]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부어게]로도 발음한다. 또한 (8나)에서는 표준 발음인 [마른니프로]로 발음하기도 하지만 [마른니브로]로도 발음하기도 한다. 이 같은 음운 변동 현상은 스음화와 동일한 환경에서 일어나고 스음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음운 변동이 화자들에 의해 표준 발음과 함께 선택적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8)에 제시된 예들은 스음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8)에서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음소인 /ㄱ/과 /ㄲ/이 연음되어 발음되지 않고 [ㄱ]과 [비]으로 발음되었다는 것은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k^ㄱ]와 [p^ㄱ]가 연음하여 [ㄱ]와 [비]으로 발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스음화도 이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이라고 할 때 종성의 기저음소인 /ㄷ, ㅌ, ㅈ, ㅊ/이 개별적으로 [시]으로 변동된 것이 아니라 (8)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들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ㄷ]이 모음조사의 초성으로 연음하는 과정에서 [시]으로 바뀐 음운 변동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추론을 적극 반영하여 본고에서는 스음화를 종성 /ㄷ, ㅌ, ㅈ, ㅊ/의 중화된

8) ‘마른 잎’은 [마른 님]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첨가 현상 때문이다.

형태인 불파음 [t^ㅍ]이 [ㅅ]으로 바뀐 음운 변동 현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추려 보면 종성 /ㄱ/이 [ㄱ]으로 종성 /ㅍ/이 [ㅂ]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결과적으로 스음화와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들을 스음화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9)와 같다.

(9) 가. 명사의 끝음절 종성이 /ㄷ, ㅌ, ㅈ, ㅊ/이고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ㄱ. 표준 발음: 종성 /ㄷ, ㅌ, ㅈ, ㅊ/이 연음

ㄴ. 스음화: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ㅍ] → [ㅅ]/*[ㄷ]

나. 명사의 끝음절 종성이 /ㄱ/이고 모음 조사와 결합 할 때:

ㄱ. 표준 발음: 종성 /ㄱ/이 연음

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k^ㅍ] → [ㄱ]

다. 명사의 끝음절 종성이 /ㅍ/이고 모음 조사와 결합 할 때:

ㄱ. 표준 발음: 종성 /ㅍ/이 연음

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p^ㅍ] → [ㅂ]

그런데 (9)에서 정리한 내용이 타당한 분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설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명사와 모음 조사가 결합된 환경은 명사 말음 종성이 중화되는 환경이 아니다. (9)의 내용이 타당한 제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9가-ㄴ, 9나-ㄴ, 9다-ㄴ)에서 명사 말음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으로 실현되는 이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9나-ㄴ)와 (9다-ㄴ)에서는 불파음인 [k^ㅍ]와 [p^ㅍ]가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파열 단계가 복원되어 불파음이 모두 파열음인 [ㄱ]과 [ㅂ]으로 실현된다. 그런데 스음화가 일어나는 (9가-ㄴ)에서는 불파음 [t^ㅍ]이 파열음 [ㄷ]으로 실현되지 않고 마찰음 [ㅅ]으로 실현된다. 이 내용도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1. 불파음 [p^h, t^h, k^h]이 실현되는 이유

먼저, (9)에서처럼 불파음이 실현되지 않는 환경에서 불파음 [t^h, k^h, p^h]이 나타나는 원인부터 논의해 보자. 국어에서 종성 /ㄷ, ㅌ, ㅈ, ㅊ, ㅋ, ㆁ/ 등이 중화되어 불파음 [t^h, k^h, p^h]으로 실현되는 환경은 (i)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앞, (ii)자음이 초성인 음절 앞, 그리고 (iii)뒷말의 도움 없이 단어 단독형으로 쓰일 때이다. 따라서 (9)에서처럼 모음 조사 앞은 일반적으로 이들 종성이 중화되는 환경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9)에서처럼 종성이 중화될 수 없는 환경에서 불파음으로 중화되는 이유를 고광모(1989)에서 찾아보려 한다. 고광모(1989:9)에서는 “체언은 그 강한 독립성으로 말미암아 언중에게 그 단독형이 더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되기 쉽다.”고 하였다. 체언 단독형이 국어 화자들에게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되기 쉽다는 사실은 명사와 용언의 기본형에 대한 화자들의 인식의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명사 ‘옷’은 실제 발화에서 조사와 결합한 형태인 ‘옷이, 옷에, 옷으로’ 등으로 실현된다. 이때 화자들에게 이 명사의 기본형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문법적 지식이 없는 화자라도 쉽게 명사의 단독형인 ‘옷’을 기본형으로 답할 것이다. 이에 반해 동사 ‘먹-’은 그 활용형인 ‘먹으니, 먹어서, 먹자’ 등으로 실현될 것이다. 만약 화자들에게 이 동사의 기본형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문법적 지식이 없는 화자들은 동사의 어간형인 ‘먹-’을 기본형이라고 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화자들은 용언과는 달리 체언에 있어서는 그 단독형을 기본형으로 삼는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고광모(1989)에서 언급된 대로 체언의 강한 독립성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위 깊게 살펴 봐야 할 점은 명사의 기본형으로 인식되는 명사 단독형의 말음 종성의 발음이다. 명사 ‘옷’이 단독형일 때 화자들은 종성을 기저 음소인 /ㅈ/으로

발음하지 않고 [츠]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로 발음한다. 따라서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 음소와 기본형으로 인식되기 쉬운 명사 단독형 종성의 현실 발음 사이에는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차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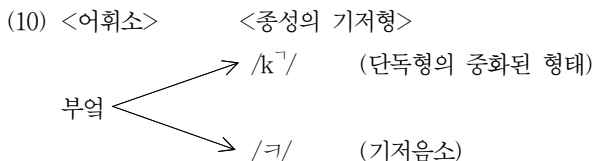
명사 ‘부엌’과 ‘숲’의 단독형은 [부엌]과 [숲]으로 발음된다. 화자들이 이 같이 발음하는 이유는 이들 명사가 단독형일 때 명사 말음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k̚]와 [p̚]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엌+에’ 또는 ‘숲+이’와 같이 명사가 모음 조사와 결합된 구성에서 국어 화자들은 표준 발음 대신에 [부어게]와 [수비]로 발음하곤 한다. 화자들이 [부어게]와 [수비]로 발음한다는 것은 명사 단독형의 실제 발음인 불파음 [k̚]와 [p̚]가 모음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되어 발음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명사 단독형의 말음 종성이 화자들에게 기저 음소와 같은 기본형으로 인식 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해 보자.

본고에서는 화자들이 명사 단독형을 기본형으로 인식하는 이유를 명사 단독형이 어휘소(lexeme)라는 사실에서 찾고자 한다. 어휘소란 무엇인가? 이익섭(2000:114-115)에 따르면 “...‘뛰어라, 뿡니다, 뿡니까, 뛰자, 뛰었다, 뛰면, 뛰는’처럼 여러 다른 모양으로 실현되는데 이 모두를 묶는 추상적인 단위를 어휘소라 하고 이들 각각을 이 어휘소의 어형(word form)이라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단어의 형태는 어형이고 어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추상적인 단위가 어휘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소는 다양한 어형들의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명사를 포함한 체언의 경우에는 단독형이 기본형에 해당되므로 그 단독형이 어휘소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명사의 단독형을 어휘소로 처리하고자 한다. 어휘소의 성격은 Dixon(2010)에서 자세히 언급되었다. 어휘소는 인간이 소유한 사전인 어휘부(lexicon)의 구성 요소로 일반 사전과 비교해 보자면 사

전의 표제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전과 마찬가지로 표제어에 해당되는 어휘소의 의미 정보, 형태-통사적인 정보 그리고 소리에 관한 정보 등 다양한 문법 정보도 어휘소와 함께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기본형인 어휘소와 실제 발화에 나타나는 형태인 어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Dixon(2010: 4-5)은 어휘소를 기저형(underlying form)의 표지(label)로 정의하고, 어형을 어휘소가 굴절되어 나타나는 형태인 표면형(surface form)으로 정의하고 하였다. 결국 표면형인 어형은 어휘부에 저장된 기저형인 어휘소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표면형과 기저형의 관계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자. 명사 ‘갯’과 명사 ‘갓’은 표면형에서 그 음가가 [갓]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들의 기저형은 서로 다르다. 그 이유는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분화되어 있고 어휘부에 저장된 소리에 관한 정보도 /갯/과 /갓/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두 단어 ‘갯’과 ‘갓’은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명사 ‘갯’과 명사 ‘갓’의 종성의 기저 음소가 /ㅈ/과 /ㅊ/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의 표기에서는 체언의 기저 음소가 무엇인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행 한글 맞춤법이 기저형인 음소를 표기하는 음소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소인 명사 ‘갯’과 명사 ‘갓’의 올바른 표기는 표면형인 ‘갓’이 아니라 이들의 기저형인 ‘갯’과 ‘갓’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휘소로 여겨지는 명사 단독형은 말음의 종성이 중화되어 표면형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흔해서 본래의 기저 음소와 표면형의 발음이 차이가 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명사 ‘꽃’의 종성의 기저 음소는 /ㅈ/이지만 기본형으로 인식되는 단독형의 종성은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h]이다. 이 같은 사실은 화자들이 종성의 기저형이 본래의 기저 음소인지 아니면 중화된 불파음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본고에서는 이 같은 혼란상으로 인해 명사 ‘갯, 갓, 꽃’과 같은 경우에 화자들이 본래의 기저

음소인 /츠, ㅅ/ 등을 기저형으로 삼기도 하지만 이들 명사 단독형의 종성인 불파음 [t^ㅈ]를 기저형으로 삼는다고 제안할 것이다. 즉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 ㅋ, ㆁ/인 명사는 어휘부의 기저형으로 (i)본래의 기저 음소가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ii)본래의 기저음소와 명사 단독형의 종성인 불파음 [t^ㅈ, k^ㅈ, p^ㅈ]이 저장되어 있기도 하고, (iii)경우에 따라서는 기본형인 명사 단독형의 종성인 불파음 [t^ㅈ, k^ㅈ, p^ㅈ]만이 저장되어 있다고 제안할 것이다. 아래 (10)을 통해 본고의 제안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자.



(10)에서 어휘소인 명사 ‘부엌’의 말음 종성은 기저 음소인 /ㅈ/이다. 하지만 화자에 따라 이 기저 음소뿐만 아니라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k^ㅈ]도 기저형으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 따라서 ‘부엌’과 같은 명사와 모음 조사가 결합된 구성에서조차 말음 종성의 기저형으로 기저 음소인 /ㅈ/가 선택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다른 기저형인 불파음 [k^ㅈ]도 선택될 수 있는 것이다. (10)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명사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 ㅋ, ㆁ/이고 모음 조사가 결합된 구성과 같이 중화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종성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인 [t^ㅈ, k^ㅈ, p^ㅈ]이 실현되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이 같은 환경에서조차 불파음인 [t^ㅈ, k^ㅈ, p^ㅈ]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화자에 따라 어휘부에 저장된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형이 기저 음소인/ㄷ, ㅌ, ㅈ, ㅊ, ㅋ, ㆁ/이기도 하고 불파음 [t^ㅈ, k^ㅈ, p^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사 ‘부엌’이 주격조사 ‘-이’와 결합할 때 화자들이

[부어케]와 [부어게]로 선택적으로 발음하는 것은 [부어케]와 같이 화자들이 종성의 기저형으로 본래 음소인 /ㄱ/으로 발음한 결과이며 [부어게]로 발음하는 것은 종성의 기저형으로 화자들이 불파음 [k^h]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10)과 같이 화자들이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형으로 (i)기저 음소와 (ii) 단독형의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을 삼고 있다는 본고의 제안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표준어 사정 과정에서 있었던 논쟁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한글 맞춤법 표준어 사정 원칙 제3항에 따르면 예사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지 않고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억’ 대신에 ‘부억’을 ‘동녁’ 대신에 ‘동녘’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억’과 ‘동녁’ 대신 ‘부억’과 ‘동녘’을 표준어로 확정하기까지는 수 없이 많은 논쟁이 있었고 수차례 번복 과정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국어어문 규정집(1988, 2010:198)⁹⁾에 언급된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녘, 부억’은 1979년 국어 심의회 안에서는 ‘녘, 부억’으로 되었던 것이 1984년 학술원 안에서는 ‘녘, 부억’으로 환원되고, 1987년 국어연구소 안에서는 다시 ‘녘, 부억’과 같이 예사소리로 돌아갔던 것을 1987년 국어 심의회에서 거센소리로 되돌려 놓은 것이다.” 이처럼 1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녘, 부억’의 표기는 회의 결과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표기법을 정리하는데 왜 논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첫째, 음절의 형태를 유지하고, 둘째,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며, 셋째, 음소로 밝혀 적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맞춤법의 이 같은 원리를 고려할 때, ‘녘~녘’ 그리고 ‘부억~부억’ 중에서 어느 것을 표

9) 본고에서는 대한교과서(주)에서 2010년도에 발행한 『국어 어문 규정집』을 참고하였다.

준어로 설정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결국 명사 말음 종성의 음소를 무엇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었다고 하겠다. 이 같은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본고에서 제시한 (10)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화자들이 (i)본래의 기저 음소 /ㄱ/과 함께 (ii)명사 말음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k^ㅁ]를 선택적으로 기저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기저 음소를 표기하여야 하는 한글 맞춤법의 원칙상, ‘~ㄴ, 부엌’과 ‘~ㄴ, 부엌’의 표기를 두고 기저 음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10)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8나)에서처럼 명사구 ‘마른 잎’과 도구격 조사 ‘-으로’가 연결될 때 화자들이 [마른니프로]와 같이 종성의 기저 음소가 연음되어 발음하는 표준 발음과 함께 [마른니브로]와 같이 불파음 [p^ㅁ]를 연음하여 발음하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화자들이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형으로 불파음 [k^ㅁ]과 [p^ㅁ]를 선택하고 이들이 주격조사 ‘-이’, 대격조사 ‘-을’, 처격조사 ‘-에’와 같은 모음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될 때 파열음인 [ㄱ]과 [ㅂ]으로 실현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파열음은 ‘폐쇄(close)’와 ‘파열(plosive)’이라는 두 개의 매커니즘이 결합되어 완성되는 소리인데 국어에서 ‘파열’의 과정은 후행하는 모음 앞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아래 (11)과 같이 불파음 [k^ㅁ]과 [p^ㅁ]가 모음 조사의 초성으로 발음될 때 파열의 과정이 복원 되어 파열음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11) <기저형> <표면형>

가. /k^ㅁ/ → [k]/____ V(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나. /p^ㅁ/ → [p]/____ V(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부엌+에’가 [부어게]로 발음되고 ‘마른 잎+으로’가 [마른니브로]로 발음되는 이유는 첫째, 화자들이 명사 말음 종성의 기저형으로 불파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선택된 기저형인 불파음이 모음 조사와 결합할 때 파열 단계가 회복되어 파열음인 [ㄱ]과 [ㅂ]으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2. 불파음 [tʰ]의 [ㅅ]으로 변동

앞 소절의 (10)와 (11)을 통해 본고에서는 ‘부엌+에’가 표준 발음인 [부어게]와 함께 [부어게]로 ‘마른 잎+으로’가 [마른니프로]와 함께 [마른니브로]으로 발음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10)과 (11)을 고려해 봐도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스음화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즉 명사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일 때 이들 종성의 중화된 형태는 불파음 [tʰ]이지만 (11)과 같은 조건에서 화자들은 파열음인 *[ㄷ]으로 발음하지 않고 언제나 마찰음인 [ㅅ]으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만약 명사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일 때도 (11)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면 화자들은 명사 ‘꽃, 갓, 갓’과 주격 조사 ‘-이’의 결합된 구성에서 불파음 [tʰ]이 연음되어 발음되는 *[꼬디, 가디]의 형태로 발음할 것이다. 그러나 국어 화자 중 어느 누구도 *[꼬디, 가디]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실 발음에서 국어 화자들이 *[꼬디]로 발음하지 않고 [꼬시]로 발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궁금하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음운론적 설명에 의지하여 답을 하자면 불파음 [tʰ]가 모음 조사 앞에서 치찰음화하여 [ㅅ]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또한 통시적인 연구의 결과에 의지해서도 설명할 수도 있을 듯

10) 불파음 [tʰ] 다음에 연속해서 모음이 뒤따르게 되면, 불파음 [tʰ]는 음운 변동을 겪게 된다. 음운 변동은 아래의 세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싶다. 본고에서는 화자들이 파열음 [ㄷ] 대신 마찰음 [ㅅ]으로 발음하는 원인을 찾기보다는 현재 국어 화자들이 이 같이 발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현행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명사 ‘술, 솥, 갖, 갓’ 등은 모두 종성이 /ㄷ, ㅈ, ㅅ/이다. 이들 명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처격조사 ‘-에’, 주격조사 ‘-이’ 등과 연결된 구성에서 화자들은 표준 발음 또는 ㅅ음화로 선택적으로 발음한다. 하지만 * [수디, 소들, 가데] 등으로는 발음하지 않는다. 특히 본고에서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화자들이 명사 발음 종성으로 기저 음소 대신에 불파음 [t^h, k^h, p^h]을 선택하고 이 명사가 주격 조사 ‘-이’와 결합된 구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원칙인 음소주의에 따르면 종성의 표기로 기저 음소를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종성의 기저 음소가 무엇

-
- 가.
- | | | |
|-----------------------------|---|---|
| 불파음 [t ^h]+ 모음조사 |  | ㄱ. 파열음 [ㄷ]로 복원됨
ㄴ. 불파음 [t ^h]로 지속적으로 발음함
ㄷ. 마찰음 [ㅅ]로 전환됨 |
|-----------------------------|---|---|

첫째, (가-ㄱ)은 불파음 [t^h]가 모음을 만나서 파열 과정이 복원됨으로써 파열음 [ㄷ]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누구도 이 같이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 둘째, (가-ㄴ)은 불파음 [t^h]가 모음 조사와 결합된 환경을 무시하고 불파음은 불파음대로 모음 조사는 모음 조사대로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불파음 [t^h]에 의해 완전히 폐쇄가 이루어진 다음 휴지를 두고 모음을 발음하는 것이다. 예들 들어 ‘꽃이’를 [꼇]과 [이]로 나누어 발음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현실 발음은 아니다. 아직 조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글자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조사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 종종 ‘꽃이’를 [꼇] 그리고 [이]로 나누어 발음한다. 셋째, (가-ㄷ)은 ㅅ음화에 대한 것이다. (가)와 같은 환경에서 불파음 [t^h]는 본래의 성질에 맞게 완전한 폐쇄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곧 이어서 모음이 따라오기 때문에 완전한 폐쇄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대신에 치조음인 불파음 [t^h]이 최대한 폐쇄와 가까운 소리를 내게되면 치조음인 마찰음 [ㅅ]로 발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폐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불파음 [t^h]는 불완전한 폐쇄로 인해 마찰음 [ㅅ]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구개음화는 중성의 기저 음소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음운 변동 현상이다. 구개음화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12)에서처럼 표준 발음법 제17항과 한글 맞춤법 제6항에 소개되어 있다.

(12) 가. 한글 맞춤법 제6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나. 표준 발음법 제5장 소리의 동화 제17항

받침 ‘ㄷ, ㅌ(르ㄷ)’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구개음화의 원칙에 따르면 화자들이 명사 말음 중성의 기저형으로 불파음 [t^ㅈ]를 선택하였을 때, ‘꽃+이’를 *[꼬디]로, ‘술+이’를 *[수디]로, ‘갯+이’를 *[가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12)에 언급된 한글 맞춤법 제6항과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따르면 명사 말음 중성의 기저형으로 불파음 [t^ㅈ]가 선택되고 이 명사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면 구개음화는 필연적이다. 화자들은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인 *[꼬디], *[수디], *[가디] 등으로 발음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12)에 제시된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은 화자가 명사 말음 중성의 기저형으로 불파음 [t^ㅈ]를 선택하고 선택된 명사 말음 중성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파열음인 [ㄷ]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꼬디], *[수디], *[가디] 대신에 명사 ‘꽃, 술, 갯’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구성에서 화자들이 구개음화된 형태인 *[꼬지], *[수지], *[가지]로 발음하여야 할 터이지만 화자들이 구개음화된 형태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화자들이 이 같이 발음하지 않는 현상도 역시 한글 맞춤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은 통일된 표기를 목적으로 설정된 규범이기도 하지만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규칙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¹¹⁾.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규칙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앞서 언급한 한글 맞춤법 제6항과 한글 맞춤법 제7항을 살펴보면 국어의 종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 제7항은 아래와 같다.

(13) 한글 맞춤법 제7항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한글 맞춤법 제7항은 간략해 보이지만 종성의 표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다. 국어에는 말음의 종성 표기로 ‘ㄷ’을 택하고 있는 명사는 거의 없다¹²⁾. 제7항에 따르면 국어 명사 말음 종성 표기로 ‘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i)명사 말음 종성의 표기로 ‘ㄷ’을 적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ii)이는 말음 종성의 기저 음소가 /ㄷ/인 명사가 국어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명사 ‘옷’의 표기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휘소인 명사 ‘옷’의 기본형은 명사의 단독형으로 [으]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명사 ‘옷’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구성에서 화자들은 [오시]로 발음한다. 만약 명사 ‘옷’의 종성의 기저 음소가 /ㄷ/이라고 한다면, (12)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제6항과 표준

11) 한글 맞춤법이 규범일 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기하는 규칙이라는 내용은 김주필(2005)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2) 현대 국어에서 명사 ‘넌’을 제외하고는 어떤 명사도 말음 종성의 표기로 ‘ㄷ’을 쓰지 않는다.

발음법 제17항을 참고할 때 화자들은 [오시]로 발음하지 않고 구개음화된 형태인 [오지]로 발음할 것이다. 하지만 국어 화자 중 어느 누구도 명사 ‘옷’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구성에서 *[오지]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을 따라 받침을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온+이’로 적지 않고 ‘옷+이’로 적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받침으로 ‘ㄷ’을 적기 위해서는 명사와 주격조사 ‘-이’가 연결된 구성에서 반드시 구개음화가 실현된 [~지]로 발음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어기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구성에서(예: 발+이), 구개음화는 어기의 말음 종성의 기저 음소가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국어 명사 중에서 말음의 종성 표기로 ‘ㄷ’을 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말음 종성의 기저 음소가 /ㄷ/인 명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실제 발화에서도 명사와 주격조사 ‘-이’가 결합한 구성에서 화자들이 끝음절을 *[지]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화자들이 명사 말음 종성이 /ㄷ, ㅌ, ㅈ, ㅊ/일 때 불파음 [t^ㅈ]을 기저형으로 삼고 주격조사 ‘-이’와 결합하는 구성에서 구개음화된 *[지]로 발음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듯싶다. 그 이유는 명사와 주격조사 ‘-이’의 결합된 구성에서 끝음절을 *[지]로 발음하는 명사가 국어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ㅅ음화는 위에서 살펴본 명사 ‘옷’의 (i)종성의 발음과 (ii)표기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명사 ‘옷’도 단독형에서는 종성은 불파음 [t^ㅈ]으로 실현된다. 이는 명사 ‘꽃, 술, 술, 갯’ 등에서 화자에 따라 이들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ㅈ]를 기저형으로 삼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명사 ‘옷’의 표기를 ‘온’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명사 ‘옷’과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구성에서는 화자들이 구개음화된 형태인 *[오지]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어 화자 중 어느 누구도 구개음화된 형태인 *[오지]로 발음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종성의 표기로 ‘ㅅ’을 택한 것이다. 이제 명사 ‘꽃, 술, 술, 갯’ 등이 화자에 따라 이들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를 기저형으로 삼고 모음 조사와 결합된 구성을 생각해 보자. 말음 종성이 불파음 [t̚]인 명사와 주격조사 ‘-이’ 결합된 구성에서 화자들은 *[꼬디], *[꼬지]로 발음하지 않고 국어의 현실 발음에 허락된 [~시]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치찰음화와 같은 음운론적 설명으로 충분히 불파음 [t̚]이 마찰음 [s]으로 바뀐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s음화 현상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것은 한글 맞춤법이 단순히 표기법을 정리한 규범만이 아니라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표기하는 규칙임을 재확인하고자 한 것이며, 그 동안 표기법을 정하기 위해 노력한 선배 학자들의 결실을 통해 본고에서 제재로 삼은 s음화 현상이 맞춤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명사 말음 종성 /ㄷ, ㅌ, ㅈ, ㅊ/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연결되는 구성에서 화자들이 이들 종성을 조사의 초성으로 연음하여 발음하는 표준 발음과 함께 종성을 [s]으로 교체하여 선택적으로 발음하는 s음화 현상을 고찰하였고 그 원인을 밝히었다. 본고에서는 s음화에 관련된 논의의 틀을 음운 변동 현상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화자들이 표준 발음과 함께 선택적 발음하는 현상으로 확장하여, 표준 발음과 음운 변동된 발음

이 선택적으로 나타는 예들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스음화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을 밝혔다. 즉 발음의 종성 /ㄱ, ㄲ/인 명사 ‘부엌, 숲, 잎’ 등도 스음화와 동일하게 종성의 중화된 형태가 모음 조사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들 명사 발음의 종성 /ㄷ, ㅌ, ㅈ, ㅊ, ㄱ, ㄲ/ 등이 모음 조사 앞과 같이 종성이 중화되지 않는 환경임을 불구하고 중화되는 이유를 본고에서는 어휘소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즉 명사 단독형은 기본형으로 이해되기 쉽고 어휘부에 저장될 때 화자에 따라 (i)본래의 기저 음소와 함께 (ii)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 [t^h, k^h, p^h]으로 기저형으로 저장하고 있어서 모음 조사와 결합하는 환경에서조차 화자들은 본래의 기저 음소와 함께 선택적으로 종성이 중화된 형태인 불파음을 기저형으로 삼아 발음하게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스음화의 경우에는 모음 조사 앞에서 파열음 *[ㄷ]으로 실현되지 않고 마찰음 [ㅅ]으로 실현되는데 그 현상을 본고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6항, 제7항, 표준 발음법 제17항을 들어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ㄷ]이 현실 발음에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구개음화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며, 현실 발음에서 구개음화된 *[지]가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국어 명사 중에서 이 같은 발음은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명사 발음 종성을 불파음 [t^h]으로 인정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연결된 구성일 때, 국어 화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편하게 발음하는 형태인 마찰음 [ㅅ]이 선택되어 스음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고광모, 『체언 끝의 변화 ㄷ > ㅅ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11, 한국어언어학회, 1989, pp.3-22.
- 곽충구, 『체언 어간말 설단자음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91, 국어국문학회, 1984, pp.1-22.
- 김주필, 『중세국어 음절말(音節末) 치음(齒音)의 음성적(音聲的) 실현과 표기』, 『국어학』17, 국어학회, 1988, pp.203-228.
- 김주필, 『한글 맞춤법 원칙의 특성과 의미』, 『어문학논총』24,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05, pp.87-107.
- 민현식, 『국어 맞춤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1) - 통일안 (1933), 문교부 개정시안(1979), 한글학회안 (1980) 의 비교를 중심으로 -』, 『산청어문』1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82, pp.21-35.
- 박태권, 『국어의 받침 표기에 대하여 - ㄷ, ㅅ 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지』7-8, 문창어문학회, 1968, pp.125-139.
- 배동식, 『체언말음 『ㄷ, ㅌ ~ ㅅ』 교체현상에 대하여』, 『겨레어문학』3, 겨레어문학회, 1964, pp.96-105.
- 성희제, 『체언말 설단 자음의 ㅅ음화 현상에 대하여』, 『어문연구』2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1, pp. 97-106.
- 이익섭, 『국어학개설』, 학연사, 1986.
- 최림식, 『목천 (牧泉) 유창균 교수 정년퇴임기념호 :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 『한국어문연구』5, 한국어문연구학회(구 계명어문학회), 1990, pp.123-144.
- 최태영, 『국어 마찰음화고』, 『국어국문학논총』(이승녕선생고회 기념), 탑출판사, 1977, pp.373-384.
- Dixon, R.M.W., Basic Linguistic Theory: V2 Grammatical Topic,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Kang, Y.J., Sound changes affecting noun-final coronal obstruents in Korean, in McClure, W. ed., *Japanese/Korean Linguistics 12*, 2003, pp.128-139.
- Kim, H.S., A phonetically based account of phonological stop assibilation, *Phonology* 18, 2001, pp.81-108.
- Oh, M.R, 『Place Perception in Korean Consonants』, 『음성과학』9-4, 한국음성과학회, 2002, pp.131-142.

Abstract

Alternation of Coda /t, t^h, ch, ch^h/ to [s]

Bak, Jae-Hee

This paper examined the reason and the grammatical meaning of s-assibilation in Korean. At first, this paper tried to frame the discussion as follows: in order to figure out the whole picture of s-assibilation, we have to consider the fact that Korean speakers can select either the standard pronunciation or s-assibilation when the coda of the final syllable of a noun is one of /t, t^h, ch, ch^h/ occurs with the particle that starts with a vowel. Then, this paper looked for certain examples which showed the same distribution of s-assibilation such as the coda of the last syllable of a noun is /k^h, p^h/ and analyzed these examples with the examples of s-assibilation. This paper found that s-assibilation was not the result of a sound change. Instead, depending on Korean speakers, the neutralized form of the coda /t, t^h, ch, ch^h/, the implosive [t[̚]], was memorized as a underlying representation as the same as the underlying phonemes. As a result, the sound [s] was not directly derived from phonemes /t, t^h, ch, ch^h/ but it was derived from the alternative underlying representation the implosive [t[̚]].

Key Word : the coda of the final syllable of nouns such as /t, t^h, ch, ch^h/, vowel particles, s-assibilation, implosive, underlying representation

박재희

소속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

주소 :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전화번호 : 02-760-0892

전자우편 : jaeheebak@gmail.com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
--